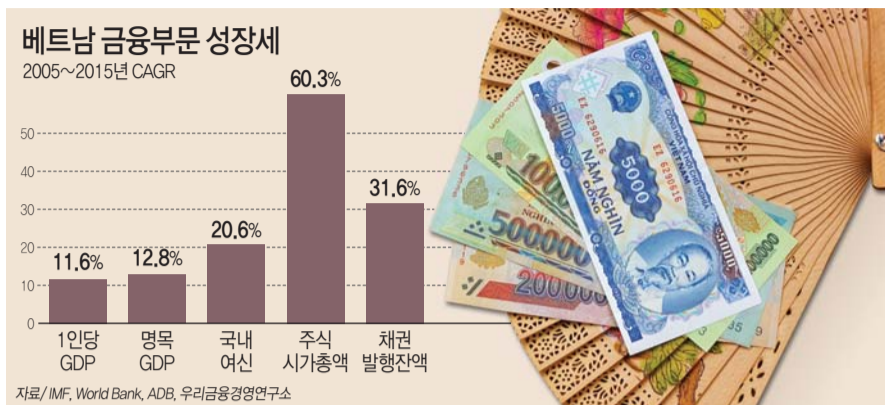


베트남에 베팅하는 금융업계... '캐시카우' 급부상

경제성장률 상승세 가파르고
스마트폰 늘면서 시장 '주목'
카드사, M&A로 현지법인 인수
영업점 개점 등 영토 확장 속도



최근 시중은행과카드사등 금융업권이 베트남 현지 사업 확장에 적극적이다.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률과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을 이유로 향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망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베트남에 인공지능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개인 신용대출을 본격화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평가를 통해 우리은행의 신용대출을 일반 고객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신용평가의 자동화와 정확도가 향상돼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신용카드 업무를 빠르게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스마트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인 '글로벌 1Q'의 베트남 지역 서비스를 개시했다. 손님은 앱을 통해 ▲계좌조회 ▲대출조회 ▲국내외 송금 등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앱 내 간편송금 서비스가 교포, 주재원은 물론 베트남 손님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요 카드사들은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법인을 인수하면

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펼치고 있다.

신한카드는 올해 1월 푸르덴셜베트남파이낸스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베트남 사업을 그룹의 주요 글로벌 현지화 전략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베트남 금융시장에서 신한카드가 보유한 모바일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나갈 계획이다.

롯데카드는 베트남 현지법인인 롯데파이낸스를 통해 지난해 12월 영업을

개시한 이후 현지인 대상 소비자대출 및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업을 본격 개시하며 적극적인 영업망 확장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베트남 전국 주요 도시에 본사 및 영업점포 14개를 오픈하고, 현지직원 500여명이 근무하는 등 베트남 전역에 영업 기반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베트남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청년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을 고려했을 때, 금융업권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망시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포스트차이나로 부상하는 베트남 2030'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베트남 현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해 결제, 자산관리 등 금융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현지 정부가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금융이 리테일 금융시

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지 고객들의 신용체계가 불분명한 점이 금융사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산건전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진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신용자는 은행, 저신용자는 여전사 등을 이용하는 국내와는 달리 신용평가가 보편화돼있지 않은 베트남에서는 은행과 여전사의 고객군이 유사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신용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사업 환경에서 다수에게 대출을 취급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악화돼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의 베트남 진출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신한금융 "장애청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장애청년드림팀' 발대식

신한금융그룹은 4일 장애청년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는 '장애청년드림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청년드림팀'은 장애청년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신한금융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15년째 시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까지 15년간 48억원을 지원해 총 958명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매년 장애청년들의 해외연수 규모와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15기 드림팀은 에티오피아, 호주(2팀),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6개팀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청년을 한국에 초청하는 한국연수팀 등 총 7개팀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최초로 결성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팀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4일 신한금융그룹이 '장애청년드림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회장, 신한금융그룹

에 방문에 현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IT 역량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용병 회장은 "드림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들이 향후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드림팀의 용기 있는 도전을 계속 응원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삼성생명, DGB금융 지분 3.6% 팔았다

40년 만에 대규모 매각
新 IFRS17 도입 대비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DGB금융지주의 지분을 대규모 매각했다. 이로써 DGB금융의 최대주주는 미국 투자 전문회사가 될 전망이다.

4일 DGB금융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3.6%에 달하는 DGB금융지주의 지분 609만 3219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이번 블록딜의 할인율은 전일 증가 8160원에 4.04%로, 1주당 단가는 7830원, 거래규모는 47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매각으로 DGB 최대주주는 올해 2월 기준 지분 4.85%를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인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카운슬'(Templeton Investment Counse



DGB금융지주 본사 전경 /DGB금융

1, LLC)이 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지분율이 6.95%에서 3.35%로 절반이상 감소해 헤리스 어소시에이트(4.29%), 우리사주조합(3.65%)에 이어 3대주주로 국민연금(3.35%)과 함께 하

게 됐다.

이처럼 삼성생명이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오는 2022년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이 예상 보험금 부족과 추가 가입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 단위의 추가 자본 여력을 준비하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여파로 지난 3일 DGB금융지주의 주가는 전일 대비 3.55% 떨어진 7870원에 장을 마감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앞서 삼성생명에서 매각에 대한 양해를 구해왔고, 잔여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도 전달받았다"며 "앞으로 배당성향의 지속적인 확대에 배당수익률을 극대화해 주주 가치 제고와 장기투자자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銀, 한국서비스품질지수서 은행 1위

모바일 앱 '솔' 편의성 등 인정

신한은행은 4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9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의 품질수준과 기업별 개선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관점에서 바라보고 꾸준히 개선 활동을 펼친 것을 인정받아 은행부문 6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특히 ▲디지털창구 서비스 강화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 솔(SOL)의 사용편의성 제고 ▲인공지능



(왼쪽부터) 신한은행 주철수 부행장,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 신한은행

능 활용 자산관리 서비스 솔리치 출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생명 '진심 품은 변액종신보험' 사망·노후생활 보장 강화

신한생명은 펀드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사망보장이 커지고 생활자금을 통해 은퇴 후 노후생활도 보장하는 '진심 품은 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사망보장과 노후보장이 강화된다.

먼저 경제활동기에는 사망보장과 치료보장에 중점을 뒀다. 변액보험의 장점을 더해 투자수익 발생 시 적립금이 증가해 사망보험금이 증액되고, 투자수익이 악화해도 주계약 사망보장을 최저보장해준다.

또 22종의 국내외 펀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우리銀, 영업점 반복업무 RPA가 맡는다

로봇기반 업무자동화 시스템 도입

우리은행은 로봇기반 업무자동화(이하 RPA)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하던 정형적·반복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체하는 것으로, RPA를 통해 업무시간과 인적오류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여신 자동연장 심사 ▲가계여신 실행 ▲가계여신 담보재평가 ▲기술신용평가서 전산 등록 ▲외화차입용 신용장 검색 ▲의심거래보고서 작성 등 영업점 지원을 위한 업무 위주로 RPA를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예적금 만기 안내 ▲장기 미사용 자동이체 등록계좌 해지 안내 ▲퇴직연금 수수료 납부 안내 ▲근

저당권 말소 등의 업무에 RPA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RPA 도입으로 업무별 평균 자동화 비중을 80%까지 높일 수 있으며, 기존 업무시간을 최대 64%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직원의 전산조작 업무를 줄여 고객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고, 상담시간을 늘려 고객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업무는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 되도록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업무 자동화 비중을 높였다"며, "자동화 비중을 높여 영업현장에서 세일즈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RPA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